



편견을 접으면  
능력이 보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  
함께 자라는 우리



장애인의 날 기념 신문 발행

발행일 : 2017년 4월 12일

발행처 : 대 홍 중 학 교

발행인 : 학 교 장 김 민 숙

##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



명통시(明通寺).

조선의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입니다. 명통시에 소속된 장애인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 번씩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 등 국가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노비와 쌀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세금과 부역을 면제 해주었으며, 신분제도가 아주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에겐 시종(일종의도우미)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 자식들이 장애인을 정성껏 부양하면 그 집을 포상하는 장려제도를 실시했으며, 반대로 장애인을 학대하는 자에게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엄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겨, 점복사, 독경사, 악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을 활성화 하였으며, 장애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위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조선 시대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없었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척추장애인 허조는 조선 초 우의정과 좌의정을, 간질장애인 권균은 중종 때 우의정을, 지체장애인 심희수는 광해군 때 좌의정을, 청각장애인 이덕수는 영조 때 대제학과 형조판서에 오르는 등 역사를 빛낸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도 한글 반포 1, 2년 전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장애의 유무보다도 그 사람 자체의 능력과 노력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그랬기에 박연(세종실록 13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옛 제왕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에게 현송(絃誦, 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음)의 임무를 맡겼으니 이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역사 채널 e :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정창권 저, 문학동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정창권 저, 글항아리)

## [ 장애인의 날 ]

4월 20일은 제 36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회의 도움이 보다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생겼고,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후천성 장애인의 수가  
선천성 장애인의 수보다  
10배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장애를 존중하는 마음!!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 제37회 장애이해 주간 행사

### ♣ 장애인의 날 행사 안내

○ 기 간 : 4월 17일(월) ~ 4월 20일(목)

○ 응모 및 문의 : 1층 꿈도움반

○ 대회 안내

부 문	내 용
날 말 퍼즐	날말퍼즐 풀기/꿈도움반 제출
삼 행 시	"소중해"라는 단어를 넣어 삼행시 짓기/꿈도움반 제출
영상감상문	"비바양상불"장애이해드라마 감상문 작성하기(수6,7교시)

○ 제출처 및 시간 : 1층 꿈도움반, 20일 목요일까지

○ 대회 시상

- 날말퀴즈대회 정답률이 높은 학생(학년별 5명)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날말퀴즈대회 참여자가 가장 많은 한 학급을 선출하여 과자를 드립니다.
- 삼행시 제출 학생 중 3명을 선출하여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퍼즐 답안지를 제출하신 선생님들 중 3분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 우수 영상감상문은 참여학생의 5%이내에서 시상합니다.

장애는

윤 보 경

감 초 이 아 니 라

드 러 냄

부 끄 러 움 이 아 니 라

당 당 함

부 족 이 아 니 라

불 편 함

특 별 함 이 아 니 라

다 곱

장 애 인 은

장 애 를 이 유 로 한

동 정 , 차 별 , 배 제 , 분 리 가 아 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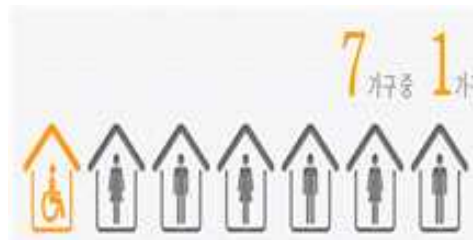
함 께 함 .





# 장애가 사라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2011년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대비 장애인의 수는 약 5.6%라고 합니다. 가구별로 따지면 7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가구 대비 장애인의 거주가주 수

생각보다 많은 숫자에 놀라셨나요? 장애인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장애인의 정의에 따르면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을 때에만 "장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제약이 될 만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장애인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640년 경 영국의 켄트지방 사람들이 비니어드 섬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한 사람들 중에 청각장애의 열성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200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하던 비니어드 섬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인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수화를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는 청각장애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니어드 섬에 살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청각장애를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듯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버나드 섬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의 장애를 사라지게 하는 요소를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점점 많아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점점 사라지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주변의 장애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글 : <제17회 전국 초·중·고 백일장> 우수작 중 부산 개림중 최은빈 '2분단 맨 뒷자리'  
그림 : 이슬 (대전 와동초등학교 교사)

## 알고 보니 이 사람들도 장애인

- \* **김대중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1위인 국가로 후천적인 지체장애인이 많습니다.
- \* **링컨 대통령** : 미국의 링컨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아 휠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나 신문기사에서 기사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 **월트 디즈니** : 미키마우스, 101마리 달마시안, 도날드 덕 등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만화 주인공들을 그린 월트 디즈니는 9살 때까지 글을 읽지 못한 학습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 \* **탐쿠르즈** : '탐견', '어퓨갯', '레인맨', '미션임파서블'과 같은 수많은 영화에서 주연한 탐쿠르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갖고 있습니다. 탐쿠르즈는 난독증(글을 못 읽는 것)으로 지금도 대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외우기 위해서 개인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 \* **스티븐 호킹** :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중의 한사람인 스티븐 호킹은 근 위축증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입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손도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주의 신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사람입니다.
- \* **아인슈타인** : 기존 물리학의 이론을 뒤집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문제행동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9살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